보험업권의 건강보험 판매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주요 판매 채널인 GA(법인보험대리점)의 매출도 급상승세다. GA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9억원(64.0%) 증가한 1229억원, 영업이익은 53억원(891.2%) 증가한 58억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18억원(60.7%) 증가한 48억원을 시현했다.별도기준으로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43억원(66.5%) 증가한 1109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234.8%) 증가한 51억원, 당기순이익은 15억원(64.5%) 증가한 4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1분기 매출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35% 수준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매출 4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실적 호조와 관련해 회사 측은 "생보사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절판 이슈가 부각된 데다 손보 전문 설계사를 적극 영입 및 육성함으로써 장기 손해보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약 175억원 규모의 나노엔텍 유상증자 참여를 결의했다. 기존 계열사인 AAI헬스케어과 함께 그룹의 헬스케어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상증자 자금은 나노엔텍의 신규 연구개발(R&D)과 해외 영업망 확충 등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을 막기 위해 신주 발행에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신주 상장 후 최소 1년간은 보호예수 기간을 두기로 했다.에이플러스그룹은 보험·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와 요양·상조·헬스케어 서비스를 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고 '토탈 라이프 케어(Total Life Care) 플랫폼' 그룹으로서의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